

# 아동들과 어르신 인권 문제 다뤄

###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초 방문 지원정책 공유·어린이 깜짝 아이디어 발표

황인홍 군수가 무주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어르신 인권과 관련해 어린이들과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8일 노인 인권 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방문은 무주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무주군의 어르신 지원정책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황인홍 군수가 무주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어르신 인권과 관련해 어린이들과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무주초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정보소외와 거동불편, 저소득, 고독 분야에 대해 해법과 실천방법 놓고 깜짝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황인홍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풀이 나가는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들은 실천방안으로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정보소외의 경우 기계로 주문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원을 불러주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모금을 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드리기를 제안했다.

또 고독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반려식물 드리기와 어르신들과 함께 인사하기 캠페인과 직접 실천하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팡이와

휠체어 지원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어르신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 놀라웠다"며 "오늘 제안한 어린이들의 해결 방안은 모두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우리 고장의 어르신들을 위해 고민하고 적극 참여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준 어린이여러

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독거노인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지원,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무주군이 펼치고 있는 어르신 복지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마이산청소녀야영장 현장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8일 군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중인 마이산청소녀야영장을 찾아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사항은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위험물질 관리 상태와 낙하물 사고 위험 요소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전 군수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며 "마

이산청소녀야영장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2023년에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마이산청소녀야영장은 마이산 도립공원 내 위치해 청소년 수련활동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올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물 보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겨울철 상수도 대책반 운영

무주군이 추운 겨울철을 맞아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겨울철 상수도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상수도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동절기 긴급복구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상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22~23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도 정했다.

동파 상수도 대책반은 김광영 맑은물사업소장을 총괄 반장으로 7팀 37명으로 운영되며, 관내 가압장 6개소, 급수전 1만24개소 등 급수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수도검침 시 계량기 동파 여부를 살피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가압장과 배수지 등 동파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순찰에 나선다.

매달 1일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한파 대응대책 회의를 통해 점검 결과에 따른 평가도 실시한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는 장시간 외출 시, 수도물을 매우 약하게 틀기, 형질 또는 폐담요 등으로 막기, 보호용 안대 고인물 금지, 동파방지열선을 구매해 활용하는 것도 동파 예방에 도움 등 6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녹이거나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연결배관을 서서히 녹여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치유농업연구회와 안호영의원실 농산업농촌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장계농협 대강당에서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치유농업연구회 창립총회 및 치유농업세미나를 개최했다.

# 치유농업 추진·활성화 기대

### 장수군 치유농업연구회 창립총회·치유농업 세미나 가져

장수군 치유농업연구회(회장 정승모)와 안호영의원실 농산업농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천창)는 지난 7일 장계농협대강당에서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치유농업연구회 창립총회 및 치유농업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치유음식 시식과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2부 세미나에서는 전주기 전대학교 최연우 치유농업 학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치유농업의 이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고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3부에서는 장수군 치유농업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안호영 국회의원,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장, 박용근 전북도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장수치유농업연구회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활동과 산업이다.

농진청에서는 작년 3월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치유농업 육성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 중앙단위 치유농업센터 1곳과 2026년까지 17개소의 거점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500여 품질인증 치유농장 조성 과 20여 치유마을 조성계획도 발표했으며 2026년까지 농촌농업의 자원을 활용한 20개의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정승모 회장은 "이번에 개최된 장수군 치유농업 창립총회 및 세미나와 농진청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장수군 치유농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사랑나눔 프리마켓 무주발전소 '우주마켓' 운영

무주군은 도시재생예비사업 중 하나인 무주읍의 무주발전소 '우주마켓'이 8일 군청 잔디광장에서 사랑나눔 프리마켓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은 무주읍, 설천면, 안성면에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발굴해 생산한 아이템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프리마켓 행사는 무주발전소 '우주마켓'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랑나눔 프리마켓에서는 먹거리(반찬) 등의 상품 판매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뤄졌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우주김치, 웰빙우주샐러드, 꽃차 등 특색있는 먹거리와 각종 반찬,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공예소품 등이



판매됐다.

또한 크리스마스 캘리카드(조명과 꽃 장식 카드)와 양초 만들기, 트리꾸미기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체험과 목공예, 원예체험 등의 다양한 흥미로운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행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액 기부될 예정이어서 명칭 그대로의 사랑나눔행사로 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 푸른꿈 작은도서관 도 우수작은도서관 선정

진안 푸른꿈 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최종평가를 통해 최우수 2개소(공립1, 사립1), 우수 3개소(공립2, 사립1), 장려 4개소(공립3, 사립1) 총 9개소의 우수도서관을 선정한다.

진안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모임, 문화동아리 구성·운영과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별 독서캠프와 푸른꿈 다울 책놀이터, 마을이야기 탐험대, 푸른꿈 환경배움터, 푸른꿈 마을나눔터 봉사활동, 부모자녀 함께 하기-그림책 주말 놀이터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에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 특히 2019년 이후 4년째 우수상에 선정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올해 '수돗물 수질평가' 합격

진안군은 8일 2022년 수돗물 수질검사서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2022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 수질검사 결과 및 사업성과 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받았음을 밝혔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연회 이상 개최되며 부군수, 여성단체협의회, 수질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평가, 공포, 수질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진안군은 2022년 한 해 동안 정수장 원수, 정수 및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결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음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도 통합 운영센터, 유충 유입 방지를 위한 정수장 시설개선, 급수관로 주기적인 보수 작업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찾아가는 수질검사 등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해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대해 설명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